打 '침묵'·投 '흔들' "호랑이 발톱 세워라"

KIA 타이거즈가 터지지 않는 답답한 방망이 때문에 그동안 잘 던지던 선발 투수들마저 흔들리는 등 초반 슬럼프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경기에서 선발투수들이 제 몫을 해내며 1~2점대로 막아주고 있지만 타선의 침묵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잘 던지던 투수들 마저 흔들리는 분위기다.

■ 금주의 프로야구

KIA, SK·삼성전…최악의 경우 하위권 추락 가능성

지난주엔 '원투펀치' 인 그레이 싱어와 김진우가 무너지며 2연패를 당해 시즌 5위로 추락했다.

현재 KIA 타선은 이용규(0.354)와 이재주(0.319)를 제외하곤 이종범(0.214), 장성호(0.266), 심재학(0.239), 손지환(0.210), 서브넥(0.205) 등 중심타선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할대인 이재주도 6득점, 7타점으로, 영양가 없는 '나 홀로 타격'을 하고 있어 팀 승리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타선의 침묵으로 마운드마저 흔들리는 등 분위기가 침체된 KIA는 이번주 엎친데 덮친격으로 강적 SK(9~11일·문학)와 삼성(12~14일·대구)과의 원정 6연전이 예고돼 있다.

팀 타선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하위권 추락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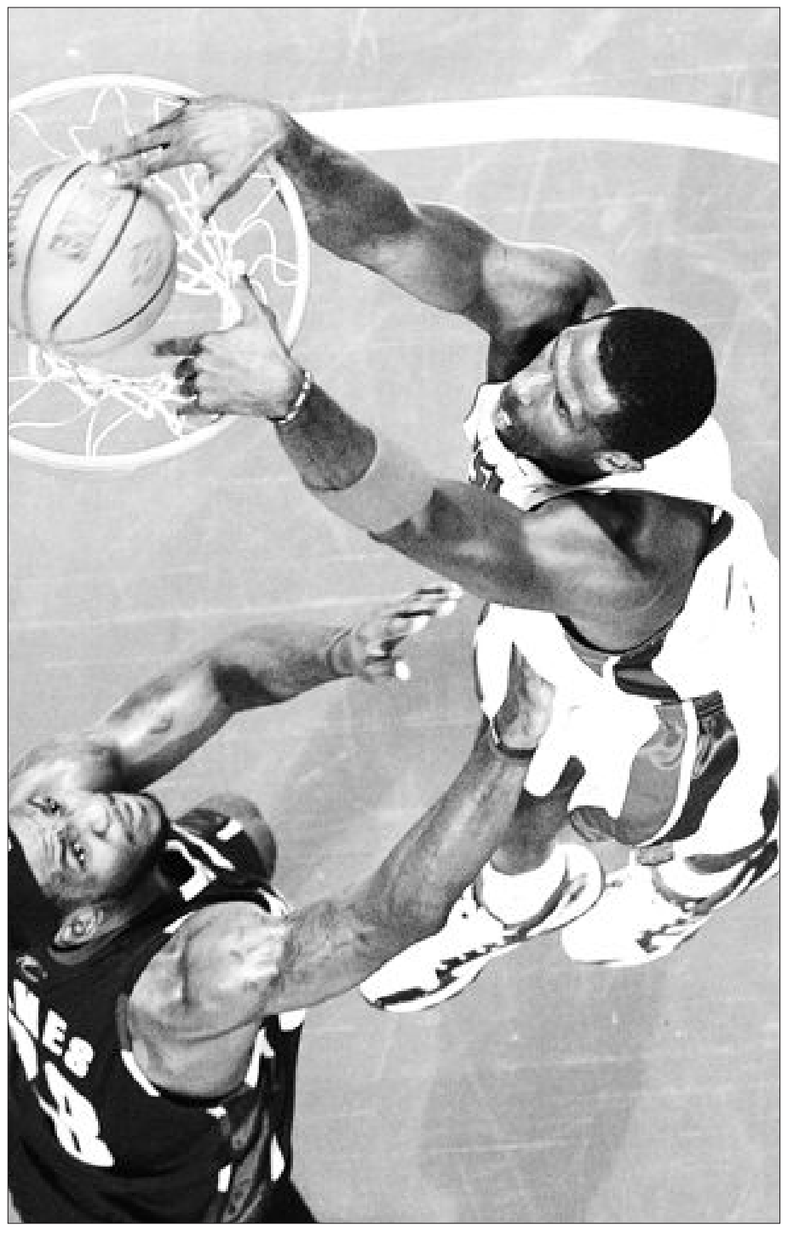
현재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SK는 눈에 띄는 매서운 방망이는 없으나 0.255의 팀 타격에서 알 수 있듯이 박재홍-이진영-시오타니-김재현-피커링으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인다.

또 주말 3연전을 맞붙는 삼성은 현재 4위로 다소 주춤하지만 타율 부문 1위인 양준혁(0.362·4홈런)과 3위 박한이(0.337·1홈런), 박진만 등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위력적이다.

삼성은 특히 철벽 마무리 오승환이 뒷문을 든든히 막고 있어 KIA가 초반에 점수를 뽑지 못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한편 9일 KIA-SK전은 선발투수로 강철민(2승1패)과 김원형(3승1패)이 출격, 초반 기싸움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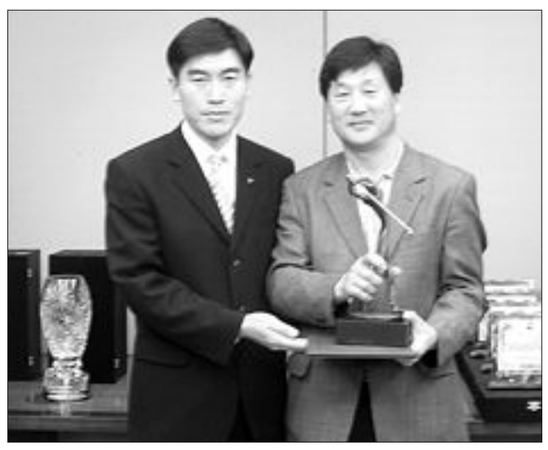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NBA 플레이오프…피스톤즈 승리 8일 미국 미시간에서 열린 NBA 플레이오프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클리블랜드 케벌리어스의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의 포워드 안토니오 맥다이스(오른쪽)가 르브론 제임스를 제치고 덩크슛을 넣고 있다. 이날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113-86으로 승리했다. /AFP=연합뉴스

함평다이너스티CC 그랜드 오픈 1주년

회원 친선 골프대회 성료



오영내 대표가 클럽챔피언 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에 오른 문명하회원(오른쪽)에게 트로피를 수상하고 있다.

호남 최초 4계절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 CC(대표 오영내)는 그랜드 오픈 1주년을 맞아 지난 7일 제2회 철쭉제및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가졌다.

골프장 전홀 주변에 심어진 철쭉이 화려하게 만개해 진분홍 융단이 펼쳐진듯한 분위기 속에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친선골프대회에서는 박영식(48) 회원이 95타(핸디 25)로 우승, 임성욱(49) 회원이 75타(핸디 4)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구이주(51) 회원은 자신의 핸디인 74타를 기록해 메달리스트를 차지했으며 위윤철(42) 회원이 18번 홀(파4·420m)에서 248m를 날려 롱기스트, 이충성(41) 회원은 15번 홀(파3·155m)에서 홀컵 2.7m가까이 붙여 니어리스트로 선정됐다.

또한 이날 처음 실시된 클럽 챔피언대회 본선대회에서 문명하(47) 회원이 2라운드 합계 11오버파 155타를 쳐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초대챔피언에게는 1년간 자유(free)부킹권과 지정 전용 라커룸 사용, 클럽내 로비에 명패를 새겨준다.

한편 문명하 회원은 고객 서비스 파트 직원들이 선정한 라운딩 매너, 시설이용 매너, 예약매너 등 서비스 전분야에서 '굿 매너상' 수상자로 선정돼 한국골프장 경영협회 회장 표창과 부상도 수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개 구단 더 창단토록 노력"

신임 KBO 사무총장 하 일 성 씨

"경기인 출신도 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

방송해설자로 친숙한 하일성(57) 전 KBS 야구해설위원이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8개구단 사장단 이사회를 열고 지난 달 사퇴한 이상국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하일성 전 KBS 해설위원을 후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다음은 하일성 사무총장과 일문 일답.

▲방송 해설자에서 KBO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소감은

-무엇보다 여러가지 걱정이 앞선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야구발전에 노력할 것이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총재와 이사회에 감사드린다.

▲오랜 기간 맡아온 해설을 접었을 때에는 아쉬움도 컸을 텐데

-솔직히 사무총장을 한번 해 보고 싶었다. 다른 이유는 없다. 지난 3일 KBS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다음날 사장과 면담했다. 정연주 사장은 재고해 달라고 말했지만 한번 KBO에서 일해 보고 싶었다.

▲재임기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동호인들이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야구장 확보 방안에 주력하고 싶다. 프로야구만 말하면 야구장 시설의 현대화와 2개 구단을 더 창단해 10개 구단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8개 구단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데 수익증대 방안이 있는가

-프로야구는 야구 팬들을 위해 존재한다. 팬들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 프로야구도 이제 출범 25년이 넘었는데 이제 1개 구단이라도 흑자를 내는 구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배리 본즈 통산 713호 홈런

현존 최고 홈런왕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개인 통산 713호 홈런을 폭발시키며 역대 이 부문 2위인 베이브 루스(714개) 기록에 한 개 차로 다가섰다.

본즈는 8일 필라델피아의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벌어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방문경기에서 2-5로 뒤진 6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존 리버의 몸쪽 공을 그대로 잡아 당겨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리며 시즌 5호, 통산 713번째 대포를 쏘아올렸다. 지난 3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경기에서 712번째 홈런을 터뜨린 뒤 4경기, 닷새만에 나온 홈런으로 본즈는 9일부터 홈구장 AT&T 파크에서 벌어지는 휴스턴, 시카고 컵스, LA 다저스와 홈 7연전에서 루스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카페

9일(화)

▲메이저리그〈미네소타-텍사스〉(07 : 55·Xports), 〈휴스턴-샌프란시스코〉(11 : 05·Xports)

▲제7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초등부(16 : 00·KBS SKY SPORTS)

▲일본프로야구〈오릭스-요미우리〉(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SK-기아〉(18 : 30·MBC ESPN), 〈두산-롯데〉(18 : 30·KBS SKY SPORTS)

▲기린월드 챌린지 축구〈일본-불가리아〉(19 : 10·Xports)

10일(수)

▲〈맨체스터Utd-셀틱〉로이킨 고별경기(04 : 00·MBC ESPN)